

Source 출처: http://www.rbc.org/uploadedfiles/Bible_Study/Discovery_Series/PDF/why_would_a_good_god_allow_suffering.pdf

WHY WOULD A GOOD GOD ALLOW SUFFERING?

CONTENTS

Elusive Answers 2
Why Would A Good God Allow Suffering? 4
To Alert Us 5
To Direct US 15
To Shape US 21
TO Unite Us 26
How, Can You Help? 30
Better Than Answers 32

It's an old question. Four thousand years ago, a victim of personal, family, and financial reversals spoke to the silent heavens and pleaded, "Show me why You contend with me. Does it seem good to You that You should oppress, that You should despise the work of Your hands (Job 10:2-3). The questions are still being asked. "Does God hate me? Is this why He is allowing me to suffer like this? Why me and not others?"

There are answers. Not exhaustive, but enough to keeps our pain in perspective. Enough to show us how to put suffering to work for us. In the following pages Our Daily Bread managing editor Kurt De Haan shows us that while heaven may not be answering all our questions, it is giving us all the answers we need to trust and love the One who, in our pain, is calling us to Himself.

Martin R. De Haan II

왜 좋으신 하나님은 고통을 허용하는가?

목록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들 2
왜 좋으신 하나님은 고통을 허용하는가?4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5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15
우리를 단련키위해21
우리를 연합하기 위해26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30
여러 답보다 더 좋은 것32

많이 해온 질문이다. 4 천년 전에 신변, 가족, 재산에 온갖 재앙을 겪은 한 피해자가 말없는 천국을 향해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논쟁하시는지 내게 보여 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억압하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고 악인의 계획에 빛을 비취 주시는 것이 주께 선하니까?" 욥 10:2-3. 이 질문은 지금에 이르기 까지 계속 던져지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나? 그래서 내가 이처럼 고통 받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건가? 왜 남이 아니고 나인가?"

답이 없지 않아 좀 있다. 철저한 답은 아니나, 우리가 받는 고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답들이 있다. 어찌하면 고통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줄 수 있을 만큼 있다.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에서, "일용할 양식"의 편집자, 켈트 드한은, 하늘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다 하지는 않을 지라도, 하늘은 우리에게 충분한 답을 주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분을 믿고 사랑하게끔 하는 충분한 답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틴 드한 2 세

ELUSIVE ANSWERS

Life can be hard to understand. In trying to come to grips with the cold realities of our existence, we can easily become frustrated. We long for answers to the immense problem of suffering. We may even wonder if we will ever fully comprehend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and why good things happen to bad people. The answers often seem to be elusive, hidden, out-of reach.

Oh, it makes sense that a terrorist would be killed by his own bomb. It makes sense that a reckless driver would be in a serious accident. It makes sense that a person who plays with fire would get burned. It even makes sense that a chain-smoker would develop lung cancer.

But what about the innocent men, women, and children who are killed by a terrorist's bomb? What about the young driver who suffers severe brain damage because a drunk veered over the center line? What about the person whose home burns down due to no fault of his own? And what about the 2 year old child with leukemia?

It is dangerous, even foolish, to pretend that we have a complete answer as to why God allows suffering. The reasons are many and complex. It's just as wrong to demand that we should understand.

When the Old Testament sufferer job realized that he had no right to demand an answer from God, he said, "Therefore I have uttered what I did not understand, things too wonderful for me, which I did not know" (job 42:3).

But God has given us some answers. Although we may not be able to know why one person gets singled out for a disease, we can know part of the reason why diseases exist. And even though we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들

삶이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가 살아 있다는 냉정한 사실을 감지 하려다 보면 쉽게 좌절감에 빠지기 쉽다. 고통이라는 심중한 문제에 우리는 간절히 답을 원한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 나고 악한 자들이 잘되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게 될지 의심이 생긴다. 그에 대한 답은 종종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숨겨져, 파악하기가 어렵다.

테러리스트가 제 폭탄에 맞아 죽게되는 것은 이해가 간다. 무모한 운전사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내는 것도 이해 간다. 불 장난꾼이 불에 데이는 것도 이해 간다. 골초가 폐염에 걸리는 것도 이해 간다.

그러나 죄 없는 남녀나 아이들이 테러리스트의 폭탄에 맞아 죽는 것은 어떻게 봐야할지? 술 취한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젊은 운전사를 받아 그의 두뇌를 상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그의 잘못이 아닌데도 집이 타버린 사람은 어떻게? 백혈병에 걸린 두살난 애기는 또 어떻게?

왜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는지에 대해 정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것은 위험하며 어리석기 까지 하다. 이유는 많고 복잡하다. 우리가 다 이해 해야 만 한다고 주장하는것도 그 못지않게 틀린 주장이다.

구약에 나오는 피해자 욘이 자기는 하나님에게 답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욘 42:3)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정도 답을 주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이 병 걸리도록 택해졌는지는 알 수 없어도 왜 병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는 좀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문제에 당면해야 되는 지는 알 수 없을 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may not understand why we face a certain problem, we can know how to deal with the situation and respond in a way that pleases the Lord.

"The fact of suffering undoubtedly constitutes the single greatest challenge to the Christian faith -John Stott

One more thing. I am not going to pretend that I fully understand the suffering that you personally may be experiencing. Although some aspects of human pain are common, the particulars are different.

And what you may need most right now is not a four- point outline on why you are suffering or even what to do about it. What you may need most is a hug, a listening ear, or someone who will just sit with you in silence.

Sometime along the way, however, you will want and need the truths of God's Word to comfort you and help you to see your plight from God's perspective.

You and I need more than untested theories. That's why in the pages that follow I have tried to include the insights of people who have suffered a variety of physical and emotional pains.

My prayer for you is that your faith in God will stand firm even when your world seems to be falling apart.

WHY WOULD A GOOD GOD ALLOW SUFFERING?

In our world of pain, where is God? If He is good and compassionate, why is life often so tragic? Has He lost control? Or, if He is in control, what is He trying to do to me and to others?

그 상황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로 반응 할 수 있는지 알수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 중에서도 제일 거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존 스칼

한가지 더 말하자면. 나는 당신이 현재 혼자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는 척 하지 않겠다. 인간들이 보통 겪는 고통에는 어느 정도 공통 점이 있다 해도 각자가 겪는 고통은 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당신이 필요 한 것은 왜 당신이 고통받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4 가지의 요점도 아니고 그 고통을 어떻게 처리 할까도 아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을 안아 줄 수 있는 포옹과, 함께 조용히 같이 앉아 있어 줄 사람이겠다.

그러는 중에 어쩌면 당신은 당신을 위로 해주며 당신이 당하고 있는 처참한 상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수 있도록 깨워 주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진실을 원하고 필요로 하게될 것이다.

당신이나 내게 필요 한 것은 체험 하지 않은 이론이 아니라 실 체험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 받으며 터득한 여러 사람들의 깨달음을 열거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하는 기도는 당신의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 질 경우에도 하나님께 향한 당신의 믿음이 곳곳하게 서기를 바라는 것이다.

왜 좋으신 하나님은 고통을 허용하는가?

이 고통 스런 세상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가 좋으시며 자비하시다면 왜 삶이 이처럼 가끔 비극적인가? 그분께서는 통제력을 잃으셨나? 통제력을 안 잃었다면 도대체 나와 다른 이들을 어찌하시려는 건가?

Some people have chosen to deny God's existence because they cannot imagine a God who would allow such misery. Some believe that God exists, but they want nothing to do with Him because they don't think He could be good. Others have settled for a belief in a kindly God who loves us but has lost control of a rebellious planet. Still others cling tenaciously to a belief in an all-wise, all-powerful, loving God who somehow uses evil for good.

As we search the Bible, we discover that it paints a picture of a God who can do anything He chooses to do. Sometimes He has acted in mercy and performed miracles in behalf of His people. At other times, though, He has chosen to do nothing to stop tragedy.

He is supposed to be intimately involved in our lives, yet at times He seems deaf to our cries for help.

In the Bible, He assures us that He controls all that happens, but He sometimes lets us be the targets of evil people, bad genes, dangerous viruses, or natural disasters.

If you're like me, you long for some way to put together an answer to this puzzling issue of suffering. I believe that God has given us enough pieces of the puzzle to help us trust Him even when we don't have all the Information we would like.

In this brief study we will see that the basic answers of the Bible are that our good God allows pain and suffering in our world to alert us to the problem of sin, to direct us to respond to **HIM** in faith and hope, to shape us to be more like Christ, and to unite us so that we will help each other.

어떤 이들은 그런 비참함을 용납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며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한다. 혹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도 그런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 없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친절하신 하나님이 있긴 있으나 그가 반항적인 이 세상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아예 제쳐 버린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현명하시고 전능하시며 선을 위해 악을 이용하시는 분임을 끈질기게 믿는 이들 또한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면 그가 걱정하시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된다. 가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자비롭게 행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한다. 그런 반면에 어떤 때는 비극이 일어나도 그를 중지 시키려고 하지 않는 때가 있다.

그는 우리 생애에 밀접히 관련키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귀머거리 같이 행할 때도 있다.

성경에서 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다짐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악한 자들, 나쁜 유전자들, 바이러스들, 자연 재앙들의 희생물이 되도록 내버려 둔다.

나와 같다면 당신은 이런 고통이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수수께끼 풀듯 풀고 싶을 것이다. 하기는 내가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정보를 다 주지는 않았어도 이미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도록 풀 수 있는 충분한 수수께끼 자료를 주었다고 본다.

이 짧은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주는 기본적인 답이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계에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죄 문제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그에게 응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같이 되게끔 하시며, 우리가 뭉쳐서 서로 돕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에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WHY SUFFERING?



TO ALERT US

Imagine a world without pain. What would it be like? At first the idea may sound appealing. No more headaches. No more backaches. No more upset stomachs. No more throbbing sensations when the hammer misses the mark and lands on your thumb. No more sore throats.

But there would also be no more sensation to alert you of a broken bone or tearing ligaments. No alarm to let you know that an ulcer is eating a hole 'in your stomach. No discomfort to warn of a cancerous tumor

that is gathering forces for a takeover of your body. No angina to let you know that the blood vessels to your heart are clogging up. No pain to signal a ruptured appendix.

As much as we may abhor pain, we have to admit that it often serves a good purpose. It warns us when something goes wrong. The cause of the misery, rather than the agony itself, is the real problem. Pain is merely a symptom, a siren or bell that sounds when a part of the body is

왜 고통을?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

아픔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자. 그 세상은 어떨까? 처음에는 그게 아주 좋게 들린다. 골치가 안 아프고, 요통이 없고, 배 아플 일이 없고, 망치가 못 대신 엄지손가락을 후려쳤을 때도 아픔이 없고, 인후염(咽喉炎)도 없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또한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찢어져도 그 것을 경고하는 아픔도 없을 것이다. 창자안에서 암이 구멍이 뚫어지도록 파먹어도 알려줄 비상경보도 없을 것이다. 몸 전체를 잡아먹는 악성 종양이 생겨도 그를 알리는 고통도 없을 것이다. 심장에 연결된 핏줄이 막혀도 그를 알리는 협심증의 증세가 없을 것이다. 맹장이 터져도 그를 알릴 아픔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픔이 좋은 목적을 종종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아픔에 질색하는 만큼 인정해야 한다. 무엇이 잘 못 되어 가고 있을 때 아픔은 이를 알려준다.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의 아픔을 일으키는 원인이 진짜로 문제다. 고통은 단지 병의 증세이고 우리 몸이 위험상태에 있거나 공격 받고 있음을 경고하는 경종 또는 사이렌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아픔이란 다음에 열거한 사항들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endangered or under attack.

In this section we will see how pain could be God's way to alert us that,

- [1. Something's wrong with the world.](#)
- [2. Something's wrong with God's creatures.](#)
- [3. Something's wrong with me.](#)

Any one of these problems could be the reason for the pain in our lives. Let's look at each possible diagnosis.

1. Something's Wrong With The World.

The sorry condition of our planet indicates that something has gone terribly wrong. The suffering we experience and the distress we sense in others indicate that suffering does 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race, social status, religion, or even morality. It can seem cruel, random, purposeless, grotesque, and wildly out of control. Bad things happen to people who try to be good, and good things happen to people who enjoy being bad.

The seeming unfairness of it all has struck close to each of us. I remember watching my grandmother as she was dying of cancer. Grandma and Grandpa Blohm moved in with our family. My mother, a registered nurse, took care of her during her final months.

Mom administered the pain killer. Grandpa desperately wanted her to be healed. Then the day came when the hearse pulled up and took away her frail, wasted body. I knew she was in heaven, but it still hurt. I hated cancer. I still do.

As I sit here thinking of all the suffering that my friends, co workers, family, neighbors, and church family have

- [1. 뭔가 세상이 잘 못 되어 있다.](#)
- [2. 뭔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잘 못되어 있다.](#)
- [3. 뭔가 내가 잘못 되어 있다.](#)

위의 있는 문제들은 어느 것이라도 우리 생애에 아픔을 가져오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제 위의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진단해 보자.

1. 뭔가 세상이 잘못 되어있다.

우리 지구의 형편없는 상태는 뭔가 지독히도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체험하는 고통과 남들이 느끼는 번뇌들은 인종이나, 신변, 종교, 혹은 도덕성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고통은 잔인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무의미하며, 괴기하며, 형편없이 규제에서 벗어난 것 같이 보인다. 나쁜일이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생기며 좋은 일이 악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도 한다.

세상일이 불공평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절실히 느끼는 바다. 암으로 죽어가던 나의 할머니를 주시해 보던 일이 생각 난다. 할머니와 불령할아버지가 우리와 같이 살려 우리집에 이사해 왔다. 정규 간호사였던 어머니가 할머니의 여생을 간호했다. 어머니는 주사를 주어 고통을 덜어 드렸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낫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던 어느날 영구차가 와서 할머니의 허약하고 다 된 몸을 실어 갔다. 할머니가 천국에 가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할머니의 죽음은 지금도 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 난 암이 미웠다. 아직도 미워한다.

여기 앉아서 내 친구들과, 동료들과, 가족들 뿐 아니라, 이웃들과, 교회 식구들이 당한 고통들을 생각할 때 그 명단이 얼마나 긴지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명단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종종 이들은 대개가 특별히 잘못 한것이 없이 고통을 받아 왔다.

experienced, I can hardly believe the length of the list and my list is incomplete. So often these people have suffered through no apparent fault of their own.

An accident, a birth defect, a genetic disorder, miscarriage, an abusive parent, chronic pain, a rebellious child, a severe illness, random disease, the death of a spouse or a child, a broken relationship, a natural disaster. It just doesn't seem fair. From time to time I'm tempted to give in to frustration.

"The Bible traces the entrance of suffering and evil into the world to a grand but terrible quality of human beings freedom." Philip Yancey

How do we resolve this? How do we live with the cold facts of life without denying reality or being overcome with despair. Couldn't God have created a world where nothing would ever go wrong? Couldn't He have made a world where people would never have the ability to make a bad choice or ever hurt another person? Couldn't He have made a world where mosquitos, weeds, and cancer would never exist. He could have but He didn't.

The great gift of human freedom that He has given to us, the ability to choose, carries with it the risk of making wrong choices.

If you could choose between being a free thinking creature in a world where bad choices produce suffering, or being a robot in a world without pain, what would you decide? What kind of being would bring more honour to God? What kind of creature would love Him more?

We could have been created to be like the cute battery operated dolls that say "I love

사고, 기형아, 유전적인 병, 유산, 학대적인 부모, 고질적인 통증, 반항적인 아이, 질병, 예상하지 못한 병, 동반자나 어린 자녀의 죽음, 이혼, 재앙, 모두가 전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때때로 나는 포기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싶은 심정이 된다.

"성경은 고통과 악이 이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인간이 가진 그 화려하고 엄청난 자유에서라고 한다." - 필립 양시

이런 불공평한 점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삶의 냉엄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며 또 절망에도 사로 잡히지 않고 살아 나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잘못 되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할 수 없었는가? 그는 사람들이 나쁜 선택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는 없었을까? 모기, 잡초, 암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었을까?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는 그리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인, 인간의 자유, 즉 선택의 능력은 우리가 틀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포함한다.

다음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것을 선택할려는지? 나쁜 선택이 고통을 초래하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와, 고통없는 세상에서 로봇같이 사는 삶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어떤 존재가 하나님에 더 영광을 돌릴지?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보는 지?

안아 주면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인형과 같이 우리가 창조되었을 수도 있었다.

you" when hugged.

But God had other plans. He took a "risk" to create beings who could do the unthinkable - rebel against their Creator.

What happened in paradise? Temptation, bad choices, and tragic consequences destroyed the tranquility of Adam and Eve's existence. Genesis 2 and 3 detail how Satan tested their love for the Lord and they failed. In biblical terms, that failure is called sin. And just as the AIDS virus infects a body, breaks down the body's immune system, and leads to death, so also sin spreads as a deadly infection that passes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Each new generation inherits the effects of sin and the desire to sin. (Rom.1:18-32; 5:12, 15,18).

Not only did the entrance of sin into the world have devastating effects on the nature of human beings, but sin also brought about immediate and continual judgment from God. Genesis 3 relates how physical and spiritual death became a part of human existence (VV.3, 19), childbirth became painful (V.16), the ground was cursed with weeds that would make man's work very difficult (vv. 17-19), and Adam and Eve were evicted from the special Garden where they had enjoyed intimate fellowship with God (vv.23 24).

"God whispers to us in our pleasures, speaks in our conscience, but shouts in our pains; it is His megaphone to rouse a deaf world." C. S. Lewis

In the New Testament, the apostle Paul described the whole creation of God as groaning and eagerly anticipating the time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즉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이다

파라다이스에서 무슨일이 일어 났었나? 유혹, 나쁜 선택, 그 결과로 생긴 비극은, 아담과 이브가 가졌던 평안을 파괴했다. 창세기 2 장과 3 장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으며, 그들이 실패했는가를 자세히 설명한다. 성경적으로 말할때 그 실패를 죄라 부른다. 에이즈 바이러스 (면역결핍증 병원균)에 걸리면 몸의 면역력이 전멸하여 결국은 죽게 되는 것 같이 죄도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염되는 치명적인 감염으로 퍼진다. 새 세대마다 죄를 짓고 싶은 갈망과 죄의 결실을 상속 받는다 (로마서 1:18-32; 5:12, 15, 18).

죄가 세상에 들어 왔을때 인간의 성품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아니라 또한 하나님으로 부터 따르는 즉각적이면서 또한 계속적인 심판을 가져왔다. 창세기 3 장은 신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어떻게 인간 생존의 한부분이 되었으며(3, 19 절), 출산이 고통스럽게 되었으며(16 절), 일이 고통스럽도록 땅이 저주받아 잡초로 덮이게 되었고(17- 19 절),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즐겼던 특별한 정원에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추방 당하였음을 설명한다. (23, 24 절)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때 속삭임으로, 우리가 양심에 가책있을때 말씀으로, 우리가 아플때 고통으로 소리 치시니 고통은 귀가먹은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장기이다." -시 엡스 루이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탄식하며 부패하도록 한 저주에서 벗어날 때를

when it will be freed from the curse of decay and be remade, free from the effects of sin (Rom. 8:19-22).

Disease, disaster, and corruption are symptoms of a deeper problem the human race has rebelled against the Creator. Every sorrow, grief, and agony are vivid reminders of our human predicament. Like a huge neon sign, the reality of suffering screams the message that the world is not the way God created it to be.

Therefore, the first and most basic answer to the problem of the existence of suffering is that it is the direct result of sin's entrance into the world. Pain alerts us that a spiritual disease is wracking our planet. Many times our troubles may be merely the side effects of living in a fallen world, through no direct fault of our own.

2. Something's Wrong With God's Creatures.

We can be targets of cruel acts from other people or from Satan's rebel army. Both fallen human beings and fallen spirit beings (angels who have rebelled) have the capacity to make decisions that damage themselves and others.

Suffering can be caused by people. As free (and sin infected) creatures, people have made and will continue to make many bad choices in life. These bad choices often affect other people.

For example, one of Adam's sons, Cain, made a choice to kill his brother Abel (Gen. 4:7-8). Lamech boasted about his violence (v v.23-24). Sarai mistreated Hagar (Gen. 16:1- 6). Laban swindled his nephew Jacob (Gen. 29:15-30).

Joseph's brothers sold him into slavery

열열히 기다린다고 묘사한다 (로마서 8:19-22).

병, 재앙, 부패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항한 심각한 문제의 증세들이다. 온갖 슬픔, 비통, 고통들은 인간이 당면한 곤경을 생생하게 기억 시키는 상기물들이다. 거대한 네온사인처럼, 고통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된 세상이 아님을 소리쳐 알리고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 왜 있느냐는 데에 대한 우선적이며 근본적인 답변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해야겠다. 아픔은 영적인 병이 우리 지구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대개의 경우 우리들이 겪는 문제들은 우리가 저지른 직접적인 실수 때문이라기 보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따른 부작용이기 쉽다.

2. 뭔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나 사탄의 반역군들이 저지르는 잔악한 행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타락한 인간들이나 타락한 영들(반역한 천사들)은 자기들뿐 아니라 남들을 해치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고통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일어 날 수도 있다. 자유로운 (하지만 죄에 감염된) 생명체로서 사람들은 사는 동안 나쁜 선택을 많이 했으며 계속 할 것이다. 이런 나쁜 선택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해한다.

예로, 아담의 아들중 하나인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창 4:7-8). 라멕은 그의 맹렬함을 자랑했다 (23-24 절). 사래는 하갈을 학대했다 (창 16:1-6). 라반은 그의 사촌 야곱을 사취(詐取)했다 (창 29:15-30).

야곱의 형제들은 그를 노예로 팔았다 (창 7:12-

(Gen. 37:12-36), and then Potiphar's wife falsely accused him of attempted rape and had him thrown into prison. (Gen. 39) Pharaoh cruelly mistreated the Jewish slaves in Egypt. (Ex. 1). King Herod slaughtered all the babies who lived in and around Bethlehem in an attempt to kill Jesus. (Mt. 2:16-18).

The hurt that others inflict on us may be due to selfishness on their part. Or we may be the target of persecution because of our faith in Christ. Throughout history, people who have identified with the Lord have suffered at the hands of those who rebelled against God.

Before his conversion, Saul was a rabid anti-Christian who did all he could to make life miserable for believers - even working to have them put to death (Acts 7:54-8:3). But after his dramatic turn to the Lord Jesus, he bravely endured all types of persecution as he boldly proclaimed the gospel message (2 Cor. 4:7-12; 6:1-10). He could even say that the suffering he endured helped to make him more like Christ (Phil. 3:10).

Suffering can also be caused by Satan and demons.

Job's life story is a vivid example of how a good person can suffer incredible tragedy because of satanic attack. God allowed Satan to take away Job's possessions, his family, and his health (Job 1-2).

I cringed even as I wrote the preceding sentence. Somehow, and for His reasons, God allowed Satan to devastate Job's life. We may tend to compare this to a father who allows the neighborhood bully to beat up his children just to see if they would still love Dad afterward.

35). 그런데다가 보디발의 아내는 야곱이 강간하려 했다고 거짓 비난하여 그가 감옥에 던져지게했다 (창 39). 바로는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 노예들을 잔인하게 학대했다(출 1).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주변에 사는 모든 유아를 대량살육했다 (마태 2:16-18) .

남들이 우리에게 주는 신체적인 피해는 그들이 이기적인 데에서 생기기 마련이다. 혹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의 대상이 되는 수도 있다. 역사를 통해서 주님과 연관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의 손에 고통받아 왔다.

개종하기 전에 사울은 신자들의 삶을 비참하게 하기 위해 - 그들을 죽게까지 하면서 (사도행전 7:54- 8:3) - 있는 힘을 다 쓰는 광신적인 반기독교인이었다. 그러나 주 예수에게로 극적인 전향을 한 후에는 복음을 널리 전파하느라 온갖 박해를 용감하게 인내했다 (고린후 4:7-12; 61-10). 그는 그가 참아낸 고통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기 까지 한다.(빌립 3:10)

사탄이나 악령이 또한 고통을 줄수 있다.

욥의 이야기는 선량한 사람이 사탄의 공격으로 얼마나 믿기 어려운 비극을 당할 수 있나를 선명하게 보여 주는 예의 하나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재산, 가족, 건강 모두를 빼어 가도록 허용 했다. (욥 1-2)

위의 문장을 쓸때 나는 역겨웠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자신의 이유로 인해서 사탄이 욥의 삶을 황폐화 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런 예를 자기 자식들이 이웃에 사는 망나니들에게 두들겨 맞도록 허용하면서 까지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는 가 시험해보는, 그런 아버지 와 같은 경우로 비교해보고 싶은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But, as job came to realize, that's not a fair assessment when speaking about our wise and loving God.

We know, though job did not, that his life was a test case, a living testimonial to the trustworthiness of God. Job illustrated that a person can trust God and maintain integrity even when life falls apart (for whatever reason), because God is worth trusting.

"Shall we accept good from God, and not troubled." Job 2: 10 (NIV)

In the end, job learned that even though he didn't understand what God was up to, he had plenty of reason to believe that God was not being unjust, cruel, sadistic, or unfair by allowing his life to be ripped apart (Job 42).

The apostle Paul experienced a physical problem that he attributed to Satan. He called it a "thorn in the flesh ... a messenger of Satan to buffet me" (2 Cor. 12:7). Paul prayed to be freed from the problem, but God didn't give him what he asked for. Instead, the Lord helped him to see how this difficulty could serve a good purpose. It made Paul humbly dependent on the Lord and put him in a position to experience His grace (vv.8- 10).

Although most cases of sickness cannot be directly tied to Satan's work, the gospel accounts do record a few examples of suffering attributed to Satan, including a blind and mute man (Mt. 12:22) and a boy who suffered seizures (17:14-18).

3. Something's Wrong With Me.

Too often when something goes wrong in

그러나 우리의 슬기롭고 사랑스런 하나님을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옴이 깨달은 것 처럼, 공정하지 않다.

옴은 몰랐을 지언정, 우리는, 그의 생애가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선형적 사건)이었으며, 그의 생애는,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산 증거였다는 것을 안다. 옴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건) 우리 일생이 망가져 가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믿고 또한 성실성을 지켜 나갈수 있다는 것을 예증(例證)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대 나쁜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옴 2:10

끝에 가서 옴은 자기가 하나님이 무엇을 행 하시려는지 이해 못했어도 하나님은 부당하지도 않고, 잔인하지도 않고, 새디스트 같지도 않고, 자기의 삶이 파탄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불공평한 이도 아니라는 것을 믿게하는 많은 증거를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옴 42).

사도 바울은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사탄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것을 " (나를쳐서) 내가 너무 자고(自高)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틀어 박힌 한개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 라고 불렀다 (고린후 12:7) . 바울은 그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지 않았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 장애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를 그가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그것은 바울이 주님께 겸손히 의지하도록 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그를 올려 놓았다 (8-10 절).

비록 대부분의 질병이 사탄의 역사라고 할수 없지만 성경에 몇 사례가 있으니 장님이며 병어리 었던 사람(마태 12:22) 과 발작으로 고통받은 소년(17:14-18)의 경우는 사탄으로 인한 고통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3. 뭔가 내가 잘못 되어 있다.

우리 생애에 뭔가 잘못되면 우리는 즉시 우리가

our lives we immediately jump to the conclusion that God is whipping us because of some sin we've committed. That's not necessarily true. As I indicated in the previous points, much of the suffering that comes into our lives is because we live in a broken world inhabited by broken people and rebellious spirit beings.

Job's friends mistakenly thought that he was suffering because of sin in his life (Job 4:7,8; 8:1-6; 22:4,5; 36:17). Jesus' own disciples jumped to the wrong conclusion when they saw a blind man. They wondered if the man's sight problem was due to his personal sin or because of something his parents had done (Jn. 9:1-2). Jesus told them that the man's physical problem was not related to his personal sin or the sin of his parents (v.3).

With these cautions in mind, we need to deal with the hard truth that some suffering does come as the direct consequence of sin - either as corrective discipline from God for those He loves, or punitive action by God upon rebels in His universe.

Correction.

If you and I have placed our trust in Jesus Christ as our Savior, we are children of God. As such, we are part of a family headed by a loving Father who trains and corrects us. He's not an abusive, sadistic parent who dishes out severe beatings because He gets some twisted pleasure out of it.

Hebrews 12 states:

My son, do not despise the chastening of the Lord, nor be discouraged when you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하는 것으로 종종 결론 짓는다. 그게 정말 사실일 리는 없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고통들은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과 반역하는 영적 존재들이 거주하는 폐쇄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잘못 생각 했었다 (욥 4:7,8; 8:1-6; 22:4,5; 36:17). 예수의 제자들도 장님을 보았을 때 성급히 틀린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그 장님의 시력문제가 자신의 죄 아니면 그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한것이 아닐까 생각 했다 (요한 9:1-2). 예수님은 사람의 신체적 문제는 그의 죄나 부모의 죄에 관계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3 절).

이런 주의사항들을 영두에 두면서, 대개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그가 주관하는 우주에 반역하는 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우리 죄에 대해 직접 내리는 결과로 온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

고치심

당신이나 내가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단련 시키고 고쳐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이끄는 한 가족의 일원이다. 그아버지는 뒤틀린 맘으로 재미 삼아 심한 채찍질을 하는 학대적이거나, 새디스틱한 부모가 아니다.

히브리서 12 장에서 말씀하기를:

내 아들이야,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are rebuked by Him; for whom the Lord loves He chastens, and scourges every son whom He receives.... Furthermore, we have had human fathers who corrected us, and we paid them respect. Shall we not much more readily be in subjection to the Father of spirits and live? For they indeed for a few days chastened us as seemed best to them, but He for our profit that we maybe partakers of His holiness (vv 5- 6, 9-10).

And to the church in Laodicea, Jesus said, "As many as I love, I rebuke and chasten. Therefore be zealous and repent" (Rev. 3:19).

King David knew what it was like to experience the tough love of the Lord. After his adultery with Bathsheba and his conniving to ensure that her husband would be killed in battle, David did not repent until the prophet Nathan confronted him. Psalm 51 recounts David's struggle with guilt and his cry for forgiveness. In another psalm, David reflected on the effects of covering up and ignoring sin. He wrote, "When I kept silent, my bones grew old through my groaning all the day long. For day and night Your hand was heavy upon me" (Ps. 32:3 4).

"My son, do not despise the chastening of the Lord, nor be discouraged when you are rebuked by Him for whom the Lord loves He chastens." Hebrews 12:5-6

In 1 Corinthians 11:27 32, the apostle Paul warned believers that treating the things of the Lord lightly - partaking of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5-6 절 9-10 절)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예수는 다음같이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懲戒)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계시록 3:19)

다윗왕은 하나님의 엄한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다. 밋세바와 간음한 후 그녀의 남편이 전장에서 죽은 것처럼 속임수로 덮으려고 할 때, 선지자인 나단이 그를 지적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시편 51 편은 다윗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던 것과 용서를 간구 한 것들을 열거 해 놓고 있다. 또 다른 시편에서 다윗은 죄를 등한시 하거나 감추려고 할 때 오는 갈등을 회고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토설치 아니 할 때에 온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시 32:3,4)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12:5-6

고린도 전서 11:27 에서 사도 바울은 신도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가볍게 다루는 것 - 성찬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징계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계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32 절)

the Lord's Supper without taking it seriously will bring discipline. Paul explained that this discipline of the Lord was purposeful.

He said, "When we are judged, we are chastened by the Lord, that we may not be condemned with the world" (v.32).

Most of us can understand the principle that whom God loves He disciplines. We would expect a loving Father to correct us and call us to renew our obedience to Him.

Judgment.

God also acts to deal with stubborn unbelievers who persist in doing evil. A person who has not received God's gift of salvation can expect to receive God's wrath at a future day of judgment and faces the danger of harsh judgment now if God so chooses.

The Lord brought the flood to destroy decadent humanity (Gen. 6). He destroyed Sodom and Gomorrah (Gen. 18-19). He sent plagues on the Egyptians (Ex. 7-12). He commanded Israel to completely destroy the pagans who inhabited the Promised Land (Dt. 7:1-3). He struck down the arrogant King Herod of New Testament times (Acts 12:19-23). And at the future day of judgment, God will deal out perfect justice to all those who reject His love and rule (2 Pet. 2:4-9).

In the here-and-now, however, we face inequities. For His all-wise reasons, God has chosen to delay His perfect justice.

The psalm writer Asaph struggled with this apparent unfairness of life. He wrote about the wicked who were getting away

우리중 대부분이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한다는 원칙을 이해할수있다. 우리는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며 그를 향한 순종을 새롭게 하라고 요구하심을 예상할수 있다.

심판.

하나님께서서는 악을 행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고집 센 불신자들을 다루기 위해서 또한 행사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미래에 있을 심판날에 하나님의 징벌을 예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심한 심판을 받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주님은 타락한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홍수를 일으켰다 (창세기 6).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했다 (창 18-19). 그는 이집트인들에게 질병을 보냈다 (출애 7-12). 그는 약속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에 명하여 완전히 멸망시켰다 (신명기 7:1-3). 그는 신약에 나오는 거만한 헤롯왕을 때려 눕혀 죽게했다. (사도행전 12:19-23). 그리고 장래에 있을 심판때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지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전부 완벽하게 재판할 것이다 (베드로 후서 2:4-9).

그러나 현재 이곳,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불공평한 사례에 직면한다. 그의 전적으로 현명한 이유로 해서 하나님은 그의 완벽한 공의를 지연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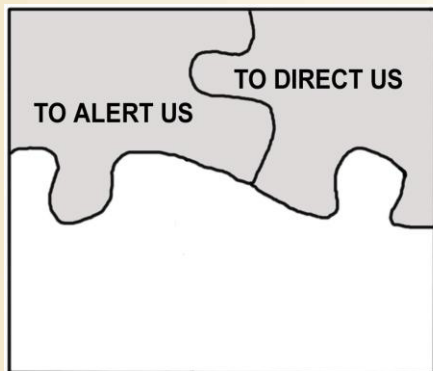
시편을 쓴 저자의 하나인, 아삽은 이처럼 삶이 불공정한 것에 대해 크게 고심했다. 그는 사악한 자들이 악행의 대가를 모면하고 번창하는 반면 정의로운 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 썼다 (시편 73). 악한자들이 번성하는것에 대해 그는 다음 같이 말했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하자

with their evil deeds, even prospering, while many of the righteous were having troubles (Ps. 73). Concerning the prosperity of the wicked he said, “When I thought how to understand this, it was too painful for me—until I went into the sanctuary of God; then I understood their end” (vv.16-17). By thinking of the sovereign Lord of the universe, Asaph was able to get things back into perspective.

When we struggle with the reality that wicked people are literally getting away with murder and all sorts of immorality, we need to remember that the Lord is . . . longsuffering toward u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2 Pet. 3:9).

The first part of the answer, then, to the problem of suffering is that God uses it to alert us to serious problems. Pain sounds the alarm that indicates something is wrong with the world, with humanity at large, and with you and me. But as we will see in the next section, God not only signals the problems, He also uses troubles to encourage us to find the solutions—in Him.

WHY SUFFERING?



그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16-17 절). 전능하신 우주의 주님을 생각함으로써 아삽은 모든 것을 새롭게 제대로 보게 되었다.

우리가 사악한 자들이 살인이나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도 글자 그대로 모면하는 현실에 고심할 때는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후서 3:9)는 구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의 첫부분은 하나님이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쓰신다는 것이다. 아픔은, 이세상이 특히 인류전체가 나와 나를 포함해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문제들을 경고하는 신호를 보낼 뿐 만 아니라 문제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해결을 찾도록 격려한다.

왜 고통을?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TO DIRECT US

When a person turns away from God, suffering often gets the blame. But strangely, suffering also gets the credit when people describe what redirected their lives, helped them to see life more clearly, and caused their relationship with God to grow closer. How can similar circumstances have such radically different effects on people? The reasons lie deep within the people, not the events.

A well-known and outspoken media leader publicly denounced Christianity as "a religion for losers." But he has not always felt that way. As a young man he had Bible training, including a Christian prep school. When joking about the heavy indoctrination he received, he said, "I think I was saved seven or eight times." But then a painful experience changed his outlook on life and God. His younger sister became very ill. He prayed for her healing, but after 5 years of suffering she died. He became disillusioned with a God who would allow that to happen. He said, "I began to lose my faith, and the more I lost it the better I felt."

What makes the difference between someone like him and a person like Joni Eareckson Tada? In *Where Is God When It Hurts?* Philip Yancey describes the gradual transformation that took place in Joni's attitude in the years after she was paralyzed in a diving accident.

"At first, Joni found it impossible to reconcile her condition with her belief in a loving God. . . . The turning to God was very gradual. A melting in her attitude from bitterness to trust dragged out over three years of tears and violent

누군가 하나님을 떠날 때면 대개가 그 책임을 고통에 돌린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다시금 그들의 방향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더 분명하게 보도록 도와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원인으로 고통을 또한 들고 있다. 어떻게 하여 같은 사정이 사람들에게 이처럼 극단적으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유는 상황에 있지않고 사람들 안에 깊이 놓여 있다.

아주 잘 알려졌으며 거침없이 말하기로 유명한 지도적인 언론인은 기독교는 "실패자들의 종교"라고 공공연히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러지는 않았다. 젊었을 때 그는 기독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성경교육을 받았다. 그는 그가 받은 집중 주입교육을 농담하여 말하기를 "난 일곱 번이나 여덟 번 구원받았었다고 생각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슴아픈 경험이 그의 세계관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변경 시켰다. 그의 어린 누이가 심하게 병들었다. 그가 그녀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나 5년간의 고통후에 그녀는 죽었다. 그런 일을 허용한 하나님에게 그는 실망하게 되었다. "나는 믿음을 잃기 시작했으며, 믿음을 더 잃게 되자 더 기분이 좋았다."고 그는 말했다.

무엇이 그와 같은 사람과 조니 에릭슨 타다 같은 사람과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아픔이 괴롭힐 때 하나님은 어디있는가?" 라는 책에서 필립 안시는 다이빙사고로 불구가 된 후 조니의 태도가 수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간 것을 묘사하고 있다.

"처음에 조니는 그녀의 처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으로 조화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점진적이었다. 비통으로부터 신뢰로 그녀의 태도가 녹아 내리기까지는, 눈물을 흘리며 격렬하게 항의하는 질문으로 질질 끌다시피 살아온, 3년의 세월이

questioning” (pp.133-134).

A turning point came the evening that a close friend, Cindy, told her, “Joni, you aren’t the only one. Jesus knows how you feel—why, He was paralyzed too.” Cindy described how Jesus was fastened to the cross, paralyzed by the nails.

Yancey then observed, “The thought intrigued Joni and, for a moment, took her mind off her own pain. It had never occurred to her that God might have felt the same piercing sensations that now racked her body. The realization was profoundly comforting” (p.134).

Instead of continuing to search for why the devastating accident occurred, Joni has been forced to depend more heavily on the Lord and to look at life from a long-range perspective.

Yancey further says about Joni, “She wrestled with God, yes, but she did not turn away from Him. . . . Joni now calls her accident a glorious intruder, and claims it was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her. God used it to get her attention and direct her thoughts toward Him” (pp.137-138).

This principle that suffering can produce healthy dependence on God is taught by the apostle Paul in one of his letters to the church in Corinth. He wrote:

We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brethren, of our trouble which came to us in Asia: that we were burdened beyond measure, above strength, so that we despaired even of life. Yes, we had the sentence of death in ourselves, that we should not trust in ourselves but in God

걸렸던 것이다.” (133-134 페이지).

가까운 친구인, 신디가 그녀에게 "죤니야, 너만이 아니야, 예수는 그 자신도 마비가 되었었기에, 네가 겪고 있는 감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준 어느 저녁에 그녀의 전환점은 왔다. 신디는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묶여서 그의 몸에 못들이 박혀 어떻게 마비되었었던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안시는 "그 생각은 죤니의 관심을 끌었고 잠시동안 죤니의 마음을 그 자신의 고통에서 떠나게 했다. 하나님은, 지금 그녀의 몸이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살을 에는 듯한 감각을 똑같이 체험했다는 것은 죤니의 머리에는 전혀 떠 오른 적이 없었던 것으로서, 그런 깨달음은 죤니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는 것을 목격했던 것이다 (134 페이지).

왜 그런 비참한 사고가 일어났나 하는 이유를 계속 찾아 내려는 대신 죤니는 주님께 더 깊이 의존하며 인생살이를 더 원대한 관점에서 보게끔 되었다.

더 나아가, 안시는 죤니에 대해 "그녀는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그랬다. 그러나 그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죤니는 이제와서 그녀의 사고를 영광스런 휘방꾼이라고 부르며, 그녀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제일 좋은 일이었다고 본다. 하나님은 그녀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사고를 이용했으며 그녀의 생각을 그에게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137-138 페이지)

고통이 하나님에게 더 건전하게 의존하게 할수있다는 원칙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중 하나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 바울은 쓰기를: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우리 삶이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8-9)

이와 같은 관념은 바울이 그의 육체적인 고통에

who raises the dead (2 Cor. 1:8-9).

A similar idea can be found in Paul's comments about his physical troubles.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strength is made perfect in weakness” (2 Cor. 12:9)

The Lord told Paul,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strength is made perfect in weakness” (2 Cor. 12:9). Then Paul added, “Therefore I take pleasure in infirmities, in reproaches, in needs, in persecutions, in distresses, for Christ's sake.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v.10).

Suffering has a way of showing how limited and weak our own resources really are. It forces us to rethink priorities, values, goals, dreams, pleasures, the source of real strength, and our relationships with people and with God. It has a way of directing our attention to spiritual realities—if we don't turn from God instead.

Suffering forces us to evaluate the direction of our lives. We can choose to despair by focusing on our present problems, or we can choose to hope by recognizing God's long-range plan for us (Rom. 5:5; 8:18-28; Heb. 11).

Of all the passages in the Bible, Hebrews 11 most reassures me that whether life is grand or grotesque, my response needs to be one of faith in the wisdom, power, and control of God. No matter what, I have good reason to trust Him—just as the great men and women of old hoped in Him.

대해 언급한 주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고린도 후서 12:9)

주님은 바울에게 말했다.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고린도후서 12:9). 그 다음에 바울이 덧붙여 말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10 절)

고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참으로 얼마나 제한되어 있고 약한가를 잘 보여주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고통은 우리의 우선순위, 가치, 목표, 꿈, 즐기는 것들, 진정한 능력의 원천,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등을 재 고려하게 한다. 고통은 -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한, 우리의 영적 현실을 주목케하는 한 방편으로 쓰여진다.

고통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 검토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집착하여 실망하기로 작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을 깨닫고 희망하기로 작정할 수도 있다 (로마서 5:5; 8:18; 히브리서 11).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중에서 히브리서 11 장은 내게 있어 삶이 위대하던가, 엉망진창이던가, 상관없이 나의 반응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지배에 대한 믿음이어야 함을 상기시킨다. 여하를 막론하고, 나도 그를 신뢰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 선대의 위대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희망했던것처럼.

“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히브리서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 Hebrews 11:1."

For example, Hebrews 11 reminds us about Noah, a man who spent 120 years waiting for God to fulfill His promise of a devastating flood (Gen. 6:3). Abraham waited many agonizing years before the child whom God had promised was finally born. Joseph was sold into slavery and wrongfully imprisoned, but he finally saw how God used all the apparent evil in his life for a good purpose (Gen. 50:20). Moses waited until he was 80 years old before God used him to help deliver the Jews from Egypt. And even then, leading those faith-deficient people was a struggle (see Exodus).

Hebrews 11 lists people like Gideon, Samson, David, and Samuel, who saw great victories as they lived for the Lord. But in the middle of verse 35 the mood changes. Suddenly we are face-to-face with people who had to endure incredible suffering—people who died without seeing why God allowed them to undergo such tragedies. These individuals were tortured, jeered, flogged, stoned, cut in half, stabbed, mistreated, and forced to live as outcasts (vv.35-38). God had planned that only in the long-range view of eternity would their faithfulness during hardship be rewarded (vv.39-40).

Pain forces us to look beyond our immediate circumstances. Suffering drives us to ask the big questions of “Why am I here?” and “What’s the purpose of my life?” By pursuing those questions and finding the answers in the God of the Bible, we will find the stability we need to endure even the worst that life can inflict because we know that this present life is not all there is. When we understand that a

11:1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 장은 파괴의 홍수를 약속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실현하기를 120 년간 기다린 사람, 노아를 상기 시킨다 (창 6:3).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 마침내 태어나기 까지 고난 많은 여러 해를 보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무죄이면서도 감옥에 갇히는 등 그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보기에는 악한 일들이었으나 이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신 것들임을 요셉이 결국에 가서 알게 되었다 (창 50:20).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써서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때까지 80 세가 되도록 기다렸다. 그렇다 해도, 믿음이 모자라는 그 유대인들을 이끄는 일은 투쟁 그 자체였다. (출애굽기를 보라)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때 큰 승리를 본, 기드온, 삼손, 다윗과 사무엘을 열거한다. 그러나 35 절 중간에 가면 분위기가 바뀐다. 갑자기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고통을 견디어 낸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비극을 견디게 했는지 깨달지 못한 채 죽어간 사람들과 직면하게 된다. 이들은 고문당했고, 조롱당했고, 채찍질 당했고, 돌팔매질 당하고, 돌로 찰려지고, 칼에 찔리고, 학대받고, 따돌림 받은 사람들이 되도록 강요 당했다 (35-38 절).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속에서도 충성했음을 오직 장기적인 영원의 관점에서 보상받도록 계획했던 것이다 (39-40 절).

아픔은 우리가 직접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멀리 바라보게한다. 고통은 우리가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라든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하게 한다. 그런 질문들을 추구하며 성경의 하나님안에서 해답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현재 사는 것이 인생살이의 전부가 아니기에 인생의 최악을 견디어 낼 때 필요한 평강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위에 서서 모든 것을 무늬 놓아 짜 가 듯이 이어나가 궁극에 가서는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을

sovereign God is standing over all of human history and weaving it all together in a beautiful tapestry that will ultimately glorify Him, then we can see things in better perspective.

In Romans 8:18 the apostle Paul wrote, "For I consider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which shall be revealed in us." Paul was not making light of our troubles, but he was telling believers to see our present troubles in light of all eternity. Our problems may indeed be heavy, even crushing.

But Paul said that when compared to the incredible glories that await those who love God, even the darkest and most burdensome circumstances of life will fade by comparison.

We need to take time to look at one more example, perhaps the most significant illustration we could consider. The day that Christ hung on the cross is now referred to as Good Friday. At the time, it was anything but a good day.

It was a day of intense suffering, anguish, darkness, and gloom. It was a day when Jesus felt all alone.

It was a day when God seemed absent and silent, when evil seemed to triumph, and hopes were dashed. But then came Sunday. Jesus rose from the grave. That awesome event put Friday in a different light. The resurrection gave a whole new meaning to what happened on the cross. Instead of being a time of defeat, it became a day of triumph.

We too can look ahead. We can endure our dark "Fridays" and be able to look on them as "good" because we serve

더 나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로마서 8:18 에서 사도 바울은 쓰기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서 때문이라." 했다. 바울은 우리의 문제들을 가볍게 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영원의 시점에서 보도록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의 문제들이 실로 무거우며, 우리를 부술 만큼 심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을 놀라운 영광에 비교할때 우리 인생살이 중에 우리가 겪는 부담은 아무리 어둡고 부담스럽다 해도 비교 가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린 좀 더 진지하게 한가지 더 표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중 가장 신중한 실례이겠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요새 와서는 "좋은 금요일"이라고 불러 지고 있다. 그 때 그날은 좋은 날과 아주 먼 날이었다.

그날은 심한 고통, 비통, 암흑의 날이고 우울한 날이었다. 그날은 예수가 극도의 고통감을 느꼈던 날이다.

그날은 하나님이 부재하여 조용한 날처럼 보였고, 악이 승리하는 듯 보였고 희망이 꺾이는 날 이었다. 그러나 일요일이 왔다.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했다. 그 경외로운 행사는 금요일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에 완전히 다른 새 의미를 부여했다. 실패의 시간이 되었던 대신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되었다.

우리도 앞을 바라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일요일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금요일 들"을 참을 수 있으며, 그런 날들을 "좋은" 날들로 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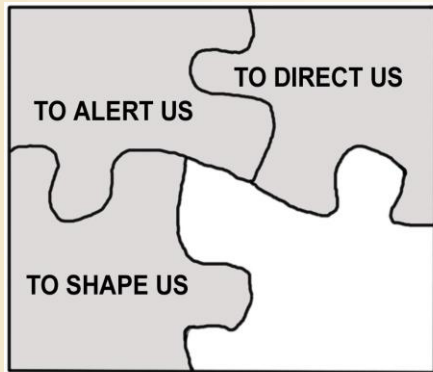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the God of Sunday.

"Happy is he who has the god of Jacob for his help, whose hope is in the LORD his God, who made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 - Psalm 146:5-6

So when troubles strike, and they will, remember this: God uses such situations to direct us to Him and to the long-range view of life. He calls for us to trust, to hope, to wait.

WHY SUFFERING?



TO SHAPE US

Athletic coaches like to use the phrase "No pain, no gain." As a high school track star (Okay, maybe I wasn't that great, but I tried hard!), I heard coaches remind us again and again that the tough practice sessions would pay off when we began to compete. They were right. Oh, we didn't always win, but our hard work did produce obvious benefits.

I learned a lot about myself during those years. And now I'm learning even more as I discipline myself to jog daily. Many days I would just as soon forget it. I don't want to have to feel the pain of stretching exercises. I would rather not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다.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실 것이요.
" - 시편 146: 5-6

그러니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앞으로 달칠 것이지만, 그럴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먼 안목으로 살피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고, 희망을 가지며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고대하고 있다.

왜 고통을?



우리를 단련키 위해

운동선수 코치들은 "수고없이 성과없다"는 말 구절을 즐겨 쓴다. 나는 고등학교 달리기 선수로서 (유명하지는 않았어도 내 할바는 다했었다!) 코치들로부터 우리가 시합에 나가기 시작하면 심하게 한 연습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계속 다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옳았다. 우리가 항상 이기지는 않았어도 힘겹게 한 우리의 노력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런 기간을 거치는 동안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매일 가벼운 달리기(조깅)로 나 자신을 수련하면서 더 많이 배운다. 여러번 그냥 잊고 마는 때도 많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 운동으로 아픔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내몸을

push my body's "radiator system" to the extreme. I would just as soon not have to battle fatigue as I go up the hills. So why do I do it? The gain is worth the pain. My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are kept low, my middle isn't expanding, and I feel more alert and healthy.

Exercise may have obvious benefits, but what about pain that we don't choose? What about illness, disease, accidents, and emotional agony? What kind of gain can come from those? Is the gain really worth the pain?

Let's consider what a fellow-sufferer had to say in Romans 5:3-4. The apostle Paul wrote, "We also glory in tribulations, knowing that tribulation produces perseverance; and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Paul introduced his statement about the benefits of suffering by saying "we also glory in tribulations." How could he say that we should rejoice or be happy that we are having to endure some painful tragedy? He certainly was not telling us to celebrate our troubles; rather, he was telling us to rejoice about what God can and will do for us and for His glory through our trials. Paul's statement encourages us to celebrate the end product, not the painful process itself. He did not mean we are to get some sort of morbid joy out of death, cancer, deformity, financial reversals, a broken relationship, or a tragic accident. All these things are awful—a dark reminder that we live in a world that has been corrupted by the curse of sin's effects.

The apostle James also wrote about how we should rejoice in the end result of our troubles. He said, "My brethren, count it all joy when you fall into various trials, knowing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지나치게 혹사시켜 내 몸 안의 "냉각 조절계"를 극한까지 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언덕을 올라갈때 오는 피로와 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면 왜 나는 운동을 하는가? 얻는 것이 고통 못지 않기 때문이다. 내 혈압과 맥박수가 낮은 측에 있게 되며 내 복부가 늘어 나지 않게되어 나는 훨씬 기민하고 건강한 상태가 된다.

운동은 확실히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 그런 아픔들은 어떤가? 발병, 질병, 사고, 그리고 감정적인 고뇌는 어떤가? 이런 고통으로 부터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통으로 얻는 혜택이 아픔을 치를 만큼 가치가 있는가?

고통을 받은 한 친구가 로마서 5:3-4 에서 한 말을 고려해보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다. " 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라."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라고 말하면서 고통이 주는 혜택에 대한 그의 말을 소개했다. 바울은 어찌하여 우리가 고통스런 비극을 견디어 내야할 때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곤란한 문제들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와 그의 영광을 위해 이를 수있고 이를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고 말한 것이었다. 바울의 말은 우리가 아픔을 통과하는 과정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가져오는 결과를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한다. 그는 우리가 죽음이나, 암, 불구, 경제적 환란, 상처난 관계자, 비극적 사고에서 병적인 즐거움을 얻어야 한다고 뜻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비참하며 - 우리가 죄의 결과에서 오는 저주로 부패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음침한 경고장이다.

사도 야고보도 왜 우리가 고통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기뻐해야 하는가에 대해 썼다. 그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produces patience. But let patience have its perfect work, that you may be perfect and complete, lacking nothing” (1:2-4).

As we combine the truths of these two passages, we can see how the good and praiseworthy products of suffering are patient perseverance, maturity of character, and hope. God can use the hardships of life to shape us to be more mature in the faith, more godly, more Christlike.

When we trust Christ as our Savior, the Lord does not suddenly zap us so that we become perfect people. What He does is remove sin's penalty and set us on the road that leads to heaven. Life then becomes a time of character development as we learn more about God and how we are to please Him. Suffering has a way of dramatically forcing us to deal with the deeper issues of life. By doing so, we grow stronger and gain maturity.

"Let patience have its perfect work, that you may be perfect and complete, lacking nothing." - James 1:4

My grandfather, Dr. M. R. De Haan, spoke about the shaping process of our lives in his book Broken Things. He wrote:

The greatest sermons I have ever heard were not preached from pulpits but from sickbeds. The greatest, deepest truths of God's Word have often been revealed not by those who preached as a result of their seminary preparation and education, but by those humble souls who have gone through the seminary of affliction and have learned experientially the deep things of the ways of God.

줄을 너희가 앎이라." 했다. 이 두 구절에 있는 진리를 엮어 볼 때 우리는 고통이 가져다주는 좋고 칭찬할만한 결과는 참을성 있는 인내력, 성숙한 인격 과 희망이라는 것을 볼수 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써서 우리가 믿음에 더 성숙하고 더 신성하며 더 그리스도 같이 되게끔 우리를 다듬을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갑자기 완전한 사람들이 되도록 변화 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는 바는 우리 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위에 세워 놓아 주시는 일이다. 그런 다음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가를 배우면서 성격을 개발하는 연마기간이 된다. 고통은 우리가 인생의 깊은 문제들을 다루도록 강요할 수 있는 극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인생문제를 다룸으로써 우리는 더 강하게 자라며 성숙한다.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4

나의 할아버지인, 엠 알 드한 박사는 그가 쓴 "깨진 것들"이란 책에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들은 설교중 가장 위대한 설교들은 설교단상에서가 아니라 병상에서 하는 설교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 깊은 진리는 신학교의 수련과 교육을 거쳐 설교하게 된 자들에게서 드러나기 보다는 고통이라는 신학교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체험을 통해 배운, 겸손한 사람들에게 의하여 종종 밝혀지기가 일쑤다.

The most cheerful people I have met, with few exceptions, have been those who had the least sunshine and the most pain and suffering in their lives. The most grateful people I have met were not those who traveled a pathway of roses all their lives through, but those who were confined, because of circumstances, to their homes, often to their beds, and had learned to depend upon God as only such Christians know how to do. The grippers are usually, I have observed, those who enjoy excellent health. The complainers are those who have the least to complain about, and those dear saints of God who have refreshed my heart again and again as they preached from sickbed-pulpits have been the men and women who have been the most cheerful and the most grateful for the blessings of almighty God (pp.43-44).

How have you responded to the difficulties of life? Have you become bitter or better? Have you grown in your faith or turned away from God? Have you become more Christlike in your character? Have you let it shape you and conform you to the image of God's Son?

How Do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Perhaps the most quoted part of the Bible during a time of pain and suffering is Romans 8:28. It reads,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to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This verse has often been misunderstood and perhaps misused, but its truth can bring a great deal of comfort.

The context of Romans 8 emphasizes what God is doing for us. The indwelling Holy Spirit gives us spiritual life (v.9), reassures us that we are children of God (v.16), and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명량한 사람들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최소한의 햇볕과 더불어 최대한의 아픔과 고통을 가진 자들이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감사하는 사람들은 평생동안 장미꽃으로 된 길을 걸은 사람들 이라기 보다는 형편상 그들의 집이나, 가끔은 침상에 갇혀 있으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 만이 알게되는, 즉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것을 배워야 했던 사람들 이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불평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었고 병원의 침대에서 하는 설교로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는 사랑스런 사람들은 대개가 가장 명량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아주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 (43-44 페이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왔는가? 당신은 더 쓴 맛의 사람이 되었나 아니면 더 단 맛의 사람이 되었나? 믿음 안에서 더 자랐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나? 성품이 더 그리스도 같이 되었나? 고통이 당신을 다듬어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같이 되도록 했나?

어떻게 모든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나?

아마도 아픔과 고통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구절은 로마서 8:28 이다. 그 구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다. 이구절은 종종 오해되고 오용되기도 하나 이 구절의 진리는 큰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로마서 8 장의 문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있는가를 강조한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주며 (9 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helps us with our prayers during our times of weakness (vv.26-27). Romans 8 also puts our sufferings in the bigger picture of what God is doing—that God is working out His plan of redemption (vv.18-26). Verses 28 through 39 reassure us of God's love for us, that no one or no thing could ever keep God from accomplishing what He wants to do, and that nothing could ever separate us from His love.

Properly viewed in the context of Romans 8, then, verse 28 powerfully reassures us that God is working on behalf of all who have trusted His Son as Savior. The verse does not promise that we will understand all the events of life or that after a time of testing we will be blessed with good things in this life. But it does reassure us that God is working out His good plan through our lives. He is shaping us and our circumstances to bring glory to Himself.

Author Ron Lee Davis writes in his book *Becoming A Whole Person In A Broken World*, “The good news is not that God will make our circumstances come out the way we like, but that God can weave even our disappointments and disasters into His eternal plan. The evil that happens to us can be transformed into God's good. Romans 8:28 is God's guarantee that if we love God, our lives can be used to achieve His purposes and further His kingdom” (p.122).

“But,” you may ask, “how can God be in control when life seems so out of control? How can He be working things together for His glory and our ultimate good?” In his book *Why Us?* Warren Wiersbe

states that God “proves His sovereignty, not by intervening constantly and

해주며(16 절), 우리가 약할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 준다 (26-27 절). 로마서 8 장은 또한 고통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즉,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볼 수 있게끔 한다.(18-26 절). 28 절부터 39 절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니 아무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방해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다 는 것을 재확인 시킨다.

로마서 8 장의 문맥을 잘 잡아 보자면, 28 절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힘차게 다짐해 준다. 그 구절은 우리가 인생 살이의 모든 일거리를 다 이해한다든가, 시련의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사는 동안 좋은 것들로 축복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구절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좋은 계획을 이뤄 나가고 계신다고 다짐해준다. 그는 그에게 영광을 가져오도록 우리의 상황들을 가꾸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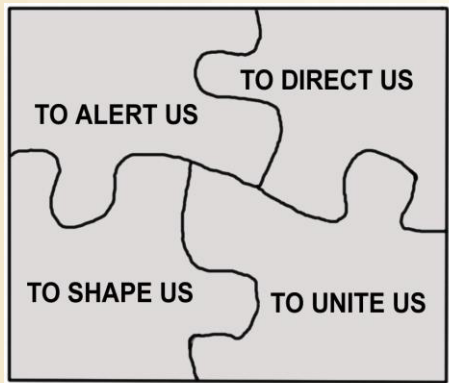
저자 론 리 데이비스는 그가 쓴 책 "*망가진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에서 쓰기를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좋을 대로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의 영원한 계획대로 우리의 실망과 재난을 엮어 나갈수 있다는 데에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악은 하나님의 선으로 전향될 수 있다. 로마서 8 장 28 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그의 목적을 이루며 그의 나라를 증진 시키고 이루는데 쓰여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보장이다." (페이지 22). 그러나 당신은, "아니,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영광과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일하신다고 하죠?"라고 물을 것이다. 워렌 위얼스비는 그가 쓴, "왜 우리를?" 이란 책에서 하나님은 "항상 매사를 막고 방지함으로서가 아니고 비극 조차도 궁극에 가서는 그의 최대한의 목적을 이루도록 매사를 지배하고 제압함으로써 그가 전능함을 증명하고 계시다" 라고 진술했다. (136 페이지)

이 우주의 전능하신 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성숙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와

preventing these events, but by ruling and overruling them so that even tragedies end up accomplishing His ultimate purposes” (p.136).

As the sovereign Lord of the universe, God is using all of life to develop our maturity and Christlikeness, and to further His eternal plan. In order to accomplish those purposes, however, God wants to use us to help others, and He wants other people to help us. That's what the next section is all about.

WHY SUFF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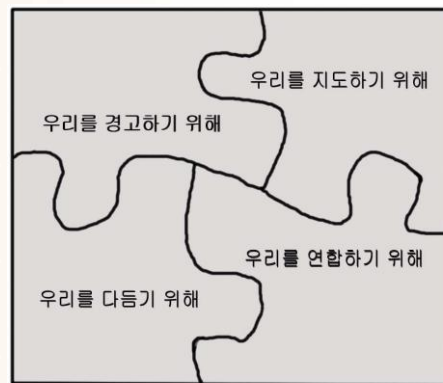
TO UNITE US

Pain and suffering seem to have a special ability to show us how much we need each other. Our struggles remind us how fragile we really are. Even the weakness of others can bolster us when our own strength is sapped.

This truth becomes very real to me each time I meet with a small group of church friends for prayer and fellowship. During those regular times together, we have shared one another's burdens for a sick child, the loss of a job, workplace tensions, a rebellious child, a miscarriage, hostility among family members, depression, everyday stresses, an unsaved

같이 되도록 개발하는데 쓰시는 한편, 그의 영원한 계획을 진전시키는 데에 결국은 쓰고 계신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원하며 다른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돕게 되기를 바란다. 다음 장은 이 점을 잘 설명한다.

왜 고통을?



우리를 연합하기 위해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 가를 잘 보여주는 수단이 있는 것 같다. 우리의 투쟁은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상기 시킨다. 우리가 원기를 잃을 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은 우리의 힘을 복돋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내가 교회친구들과 작은 모임으로 모여 기도와 교제를 할 때 마다 절실히 느껴진다. 것처럼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임 때 마다 우리는 아픈아이, 실직, 직장에서 느끼는 위압, 반항적인 아이, 유산, 가족들간의 충돌, 침체, 일상생활의 긴장, 구원 못받은 식구, 곤란한 결정, 이웃에 일어난 범죄, 죄로부터 오는 갈등, 등등 여러가지 우리의 마음에 부담되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왔다. 그렇게 만난 후에 여러번 나는 우리가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family member, tough decisions, neighborhood crime, battles with sin, and much more. Many times at the end of those meetings I have praised the Lord for the encouragement we have given to one another. We have been drawn closer and we have been strengthened as we have faced the struggles of life together.

These kinds of personal experiences in light of Scripture remind me of two key truths:

1. Suffering helps us to see our need of other believers.
2. Suffering helps us to meet the needs of others as we allow Christ to live through us.

Let's take a look at each of these ways God uses pain and suffering for the purpose of uniting us with other believers in Christ.

1. Suffering Helps Us To See Our Need Of Other Believers.

In describing the unity of all believers in Christ, the apostle Paul used the analogy of a human body (1 Cor. 12). He said that we need one another to function properly. Paul described the situation this way: "And if one member suffers, all the members suffer with it; or if one member is honored, all the members rejoice with it.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members individually" (vv.26-27).

In his letter to the Ephesians, Paul spoke of Christ, "from whom the whole body, joined and knit together by what every joint supplies, according to the effective working by which every part does its share, causes growth of the body for the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 왔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함께 대할 때 우리는 더 친밀하게 되었고 힘을 더 얻게 되었다.

이런 개인적 경험은 성경적으로 볼때 나에게 두가지 중요한 진리를 상기 시켜준다.

1. 고통은 우리가 다른 신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끔 도와 준다.
2. 고통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계시도록 할 때,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 주도록 한다.

이제 위의 두가지 방법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있는 다른 신자들과 단합하게 하는가 보기로 하자.

1. 고통은 우리가 다른 신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끔 도와 준다.

그리스도안에 있는 신자들의 연합을 설명하기위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몸을 비유로 든다 (고린도 전서 12). 그는 우리가 제대로 행하려면 서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울은 그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26-27 절)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 같이 말했다.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에베소서 4:16)

edifying of itself in love” (Eph. 4:16).

When we begin to recognize what other believers have to offer us, then we will realize how much can be gained by reaching out for their help when we are going through a time of struggle. When troubles seem to knock out our strength, we can lean on other believers to help us find new strength in the Lord's power.

2. Suffering Helps Us To Meet The Needs Of Others As We Allow Christ To Live Through Us.

In 2 Corinthians 1, the apostle Paul wrote,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mercies and God of all comfort, who comforts us in all our tribulation, that we may be able to comfort those who are in any trouble, with the comfort with which we ourselves are comforted by God” (vv.3-4).

As we saw in the previous section, we need one another because we have something valuable to offer. We have spiritual insights and wisdom that we have learned as we have undergone trials of all sorts. We know the value of the personal presence of a loving person. When we experience the comfort of God during a troubling situation, we then have an ability to identify with those people who undergo similar situations.

While preparing to write this booklet, I read about the experiences of people who have suffered greatly, and I spoke with others who were familiar with pain. I searched to find out who helped them most in their time of trouble. The answer again and again has been this: another person who had undergone a similar experience.

That person can empathize more fully, and

우리가 다른 신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의 도움을 청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잘 깨닫게 된다. 문제들이 우리의 힘을 거의 다 빼앗아 가듯 싶을 때, 우리는 다른 신자들이 우리를 도와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찾게 해 주도록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2. 고통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계시도록 할 때,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 주도록 한다.

고린도후서 1 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 같이 썼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써 고난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3-4 절)

지난 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서로 가치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시련을 겪어 오는 동안에 배운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 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는가를 알고 있다. 우리가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안을 체험하면 같은 상황을 견디어 내고 있는 사람들과 동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 책자를 쓰려고 준비하는 동안 나는 심하게 고통받은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 읽었고 아픔을 잘 알게 된 사람들과 대화를 했다. 그들이 고통을 받는 동안 주로 도와준 사람들을 찾았다. 답은 항상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 이었다.

그런 사람은 더 충분히 동감해 줄 수 있고,

his or her comments reflect understanding that comes by experience. To someone who is burdened down, it often sounds shallow and patronizing to hear another say, "I understand what you are going through," unless that person has gone through a similar situation.

Even though the best comforters are those who have undergone similar situations and have grown spiritually stronger through them, that does not mean that the rest of us are off the hook. All of us have a responsibility to do all we can to empathize, to try to understand, to try to comfort. Galatians 6:2 tells us,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so fulfill the law of Christ." And Romans 12:15 states,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and weep with those who weep."

Dr. Paul Brand, an expert on the disease of leprosy, wrote, When suffering strikes, those of us standing close by are flattened by the shock. We fight back the lumps in our throats, march resolutely to the hospital for visits, mumble a few cheerful words, perhaps look up articles on what to say to the grieving.

But when I ask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ho helped you in your suffering?" I hear a strange, imprecise answer. The person described rarely has smooth answers and a winsome, effervescent personality. It is someone quiet, understanding, who listens more than talks, who does not judge or even offer much advice. "A sense of presence." "Someone there when I needed him." "A hand to hold, an understanding, bewildered hug. A shared lump in the throat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pp.203-204).

It's clear — God made us to be

그사람들의 던지는 말들은 경험에서 비롯된 이해심을 반영한다. 마음에 무거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당신이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잘 이해한다."고 말해주어도 그것이 정말로 같은 상황을 겪고난 사람의 말이 아닌한 종종 가볍게 들리거나 생색내는 말 같이 들리기 쉽다.

최상의 위로자는 같은 상황을 겪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강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해서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위로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동감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위로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갈라디아서 6:2 절은 우리에게 말한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리고 로마서 12:15 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한다.

나병 전문가인 바울 브랜드 박사는 썼다. 고통이 닥쳐오면, 근처의 방관자들은 충격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 우리는 목이 메이는 듯한 느낌을 극복하고, 단호하게 행진하여 병원에 심방을 가서, 몇마디 명랑한 말을 종알거리게 된다. 애도하는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하는지 알아 보려고 관련문구를 찾아 보기도 한다.

그러나 병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중에 누가 도움이 되었나요?" 라고 물으면, 나는 이상하고 애매한 답을 듣게 된다. 그들이 묘사하는 사람은 매끄러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애교가 있거나, 활기찬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그는 조용하고, 이해심있고, 말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편이며 상대방을 판단하지도 않고, 충고도 많이 안하는 그런 사람이다. 좀 더 열거 한다면, "있어 주는 느낌." "내가 필요할때 있어 주는 사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손," "이해심," "당혹한 포옹," "목이 메이는 순간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사람" 등이다.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 203-204 페이지)

명백한 것은 -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병자들에게 제공할

dependent on one another. We have much to offer those in pain, and others have much to offer us as we endure troubles.

"In short, there is no magic cure for a person in pain. Mainly, such a person needs love, for love instinctively detects what is needed." - Philip Yancey

As we develop that unity, we will experience greater comfort when we recognize that God uses suffering to alert us to the problems of sin, He uses difficulty to direct us to Him, and He can even use problems to make us more like Christ.

How can we help?

Right now you may be overwhelmed by pain. The thought of trying to help someone else may seem impossible. At some point along the way, though, as you receive God's comfort, you will be ready to give comfort (2 Cor. 1). In fact, reaching out to help others may be an important part of the process of your own emotional healing.

Or maybe you have read this booklet with the hope that you will be better able to help a hurting friend or loved one. The suggestions in this section are designed for you as well.

Helping others is risky. Our help may not always be welcomed. We may sometimes say the wrong things. But try to help we must. Jesus'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Lk. 10:25-37) reminds us that we are responsible to help the hurting people we encounter. Here are some suggestions:

- Don't wait for someone else to act first.

수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고통을 견디어 나아 갈 때 그들 또한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술적인 치료는 없다. 주로 그런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니 사랑은 본능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아낸다." - 필립 양시

우리가 그런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통을 이용하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경계하고, 어려움을 써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문제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더 그리스도같이 되게끔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더 큰 위로를 체험 할 것이다.

어떻게 도울수 있을 가?

지금 당신은 고통으로 압도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남을 도와 준다는 생각자체마저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사는 날 동안 어느 시점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위안을 받는 것처럼, 남에게 위안을 주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1). 사실은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신 자신이 감정적으로 치유되는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 싶다.

혹시 당신은 곤궁에 빠진 친구나 사랑하는 자를 더 잘 돕기 위해서 이책자를 읽는 지도 모른다. 다음 장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당신을 염두에 두고 썼다.

남을 돕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가 제공하는 도움이 늘 환영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가끔 우리는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하기 쉽다. 그러나 도우려고 노력은 꼭 해야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만나는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 시킨다 (누가 10:25-37). 여기 몇가지 제안이 있다.

- 남이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지 말라.

- Be physically present with them if possible and touch their hand or give an appropriate hug.
- Focus on their needs and not on your own discomfort with not having adequate answers.
- Allow them to express their feelings. Don't condemn their emotions.
- Learn about their problem.
- Don't pretend that you never struggle.
- Keep your words brief.
- Avoid saying, "You shouldn't feel that way," or, "You know what you should do."
- Assure them of your prayers.
- Pray! Ask God to help you and them.
- Keep in touch.
- Help them dispel false guilt by assuring them that suffering and sin are not inseparable twins.
- Help them find forgiveness in Christ if they are suffering due to sin, or if they become aware of some sin as they reflect on their lives.

"Rejoice with them that do rejoice, and weep with them that weep." - Romans 12:15

- Encourage them to recall God's faithfulness in times past.
- Focus on Christ's example and

. 가능한 한 같이 있어 주며 그들의 손을 잡든가 아니면 경우에 벗어나지 않은 포옹을 하라.

. 그들의 필요사항에 초점을 두고 적절한 답을 줄 수 없는 자신의 불편에는 신경 쓰지 말라.

. 그들이 감정을 표현하도록 허락하라. 그들이 느끼는 것에 판단하지 말라..

.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알도록 하라.

. 당신은 문제가 전혀 없는 것 처럼 행세하지 말라.

. 하는 말은 간단하게 하라

. 이런 말은 삼가하라. "그렇게 느껴서는 안돼." 혹은 "넌 네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잖아."

. 네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줘라.

. 기도해라! 하나님께 너와 그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해라..

. 연락을 끊지 말고 계속 취해라.

. 고통과 죄는 떼어놓을 수 없는 쌍둥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 줌으로서 잘못된 죄의식을 갖지 않게 도와 줘라.

. 그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거나 그들의 인생을 되돌아 볼 때 어떤 죄를 깨닫게 된다면 그리스도안에서 죄사함을 얻도록 도와 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 지난 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충실했던가 되새기도록 권면해라.

. 그리스도의 모범과 도우심에 초점을 뒀라.

.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돌보시며

help.

- Remind them that God loves us and cares for us and that He is in control.
- Encourage them to take one day at a time.
- Encourage them to reach out for the help they need (friends, family, pastor).
- Help them to realize that coping with troubles takes time.
- Remind them of God's shepherding love (Ps. 23).
- Remind them of God's control over the universe, both the big and small events of life.
- Don't ignore their problem.
- Don't be artificial in trying to "cheer them up." Be genuine. Be the friend you were to them before trouble hit.
- Show them the love you would like other people to show you if you were in their situation.
- Be a good listener.
- Acknowledge how much they hurt.
- Give them time to heal. Don't rush the process.

Better than answers

We cry out for complete answers. God offers Himself instead.

And that's enough. If we know that we can

세상 만사를 통제하고 계심을 상기 시켜라.

- . 하루 하루 살도록 권장하라.
- .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청하도록 권면해라 (친구들, 가족, 목사님).
- . 문제를 다루는 데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줘라.
- . 하나님의 목자적인 사랑을 상기시켜라 (시편 23).
- . 하나님의 전 우주에 대한 통치는 인생의 크고 작은 매사에 미치는 것을 상기시켜라.
- . 그들의 문제를 등한히 말라.
- .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공적인 수단을 쓰지 말라. 당신 있는 그대로 대하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랬듯이 변함없는 친구가 되라.
- . 당신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때 받기 원할 그런 사랑을 베풀라.
- . 잘 듣는 청취자가 되라.
- . 그들이 얼마나 아픈가를 인정해라.
- . 치유하는 데 시간을 줘라. 성급히 서둘지 말라.

여러 답보다 더 좋은 것

우리는 철저한 답변을 찾아 부르짖는다. 하나님은 답대신 자신을 제공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그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 없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의미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 하나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trust Him, we don't need full explanations. It's enough to know that our pain and suffering are not meaningless. It's enough to know that God still rules the universe and that He really does care about us as individuals.

The greatest evidence of God's concern for us can be found by looking at Jesus Christ. God loved our suffering world so much that He sent His Son to agonize and die for us, to free us from being sentenced to eternal sorrow (Jn. 3:16-18). Because of Jesus, we can avoid the worst of all pain, the pain of separation from God — forever. And because of Christ, we can endure even the worst of tragedies now because of the strength He puts within us and the hope He sets before us.

We cry out for complete answers. God offers Himself instead.

The first step in coping realistically with the problem of suffering is to recognize its roots in the universal problem of sin. Have you recognized how much Jesus suffered on the cross for you to free you from the penalty of sin?

Put your trust in Him. Receive His free gift of forgiveness. Only in Him will you find a lasting solution to the problem of pain in your life and in the world.

© RBC ministries

Translation by [youshine](#) Proof reading by Miran & Hweenam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최대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알게 된다. 하나님은 곤경받고 있는 이 세상을 그처럼 많이 사랑하시어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고난 받고 죽도록 했으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슬픔속에 지내도록 선고 받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요한 3:16-18). 예수로 해서 우리는 고통 중에도 최악의 고통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떼내어지는 고통을 면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최악의 비극도, 그리스도가 우리안에 넣어 주는 힘과 우리 앞에 세워 주는 희망으로 견디어 나갈수 있다.

우리는 철저한 답변을 찾아 부르짖는다. 하나님은 답대신 자신을 제공한다.

고통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이겨 나가는 첫 발돋움은 그 문제의 뿌리가 죄라는 보편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 있다.

당신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받을 죄의 형벌에서 당신을 사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깨달았는가?

그를 믿으라. 그가 거저 주는 {무료의} 선물, 즉 죄사함을 받으라. 오직 그안에서 만, 당신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최후의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 RBC ministries

번역: 유샤인 한어교정: 이미란 과 이희남
http://www.youshineblog.com/suffering/on_suffering4korean.htm